

創立 열 돌 — 그러나?

며칠 前 某 텔레비전 뉴스 時間에 우리 나라 市中에서 使用하는 各種 度量衡器의 正確性 與否를 取材하여 그 結果를 放映한 일이 있다.

한 記者가 市中 精肉店에서 돼지 고기 600g을 사서, 다른 저울 몇을 利用하여 計量한 結果 서로 間 念금의 差異를 顯示하므로, 우리 나라의 “標準研究所”에 가서 어느 것이 正確한가를 판가름해 보는 內容의 展開였다.

이 프로그램 中 가장 印象的이었던 場面은 標準研究所 某博士의 다음과 같은 要旨의 이야기였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年間 200億弗 程度의 輸出을 하고 있습니다. 이 程度의 經濟水準이라면 現在 이 곳 研究所施設로 充分한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輸出의 規模를 年間 400億弗, 500億弗로 늘리려면 우리의 技術도 더욱 精密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결코 뒷받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生産業者들이 時代感覺을 가지고 能動的으로 앞장서 對處하지 않으면 國內外 競爭에서 살아 남지 못하리라는 暗示로서 끝을 맺었다.

참으로 至當한 이야기이다. 時代感覺을 가지고 巨視的인 立場에서 照明하는 智慧가 없으면 惰性에 젖게 되고 退步할 수 밖에 없다는 論理는 反論의 餘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983年은 韓國火災保險協會가 創立 열 돌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旬年間 우리 協會가 이 社會를 위해서 많은 奉仕를 하여 온 것이 事實이다. 1982年 11月 19日字로 西獨 “콜른 再保險會社”(The Cologne Re)가 當協會에 보내 온 書信에서 “韓國 火災保險 市場에서의 規律과 受益은 主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存在와 效率的인 活動에 힘입은 바라고 確信한다”(… We are sure that the discipline and profitability of the fire insurance market in Korea is due to a large extent to the existence and efficiency of the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고 讚賞한 바 있거니와, 우리 自身の 技術業務 成果에 대해서는 어느 程度 自負心을 가져도 無妨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同時에 現在의 位置에 대한 謙虛한 反省도 있어야 할 것이다.

創立 열 돌을 맞은 우리는 果然 草創期에 가졌던 情熱을 그대로 간직하고 巨視的으로 먼 將來를 바라보고 있는가? 앞날의 우리 社會防災와 保險技術을 뒷받침할 만한 準備態勢를 能動的으로 갖춰 나가고 있는가?

時代에 이끌려 나가지 말고 앞장서 나가야겠다는 決心이 없는 한 우리 앞에는 검은 구름만 있을 뿐이다.